



학생 프로필

이름
레이첼 리

국적
중국

프로그램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CE) (레벨 7)

학업 연도
2024

캠퍼스
NZTC 온라인



RACHEL'S STORY

NZTC 학생 성공 스토리

배경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이고 중국 쑤저우에서 왔어요. 2022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뉴질랜드에 처음 왔고, 원래는 세일즈 일을 하다가 우연히 유치원 보조교사(Relief Teacher)로 일하게 되면서 유아교육이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을 계기로 NZTC에서 Graduate Diploma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뉴질랜드로 오게 된 계기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뉴질랜드 남섬 여행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서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뉴질랜드는 워라밸도 좋고, 유아교육 분야는 졸업 후 일정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비교적 명확한 루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유학을 결심하게 된 큰 계기가 됐죠.

NZTC를 선택한 이유

예전에 보조교사로 일할 때 여러 선생님들께 NZTC를 많이 추천받았어요. 실습 기회도 많고, 학습 방식도 유연해서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았죠.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클랜드에서의 삶

오클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도시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일자리 기회도 많고 생활도 좀 더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New Zealand
Tertiary College



온라인 학습 경험

저는 온라인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강의를 반복해서 볼 수 있었고,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물론 대면 수업처럼 교수님이나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진 못했지만, 홈센터가 있어서 정서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저한테는 온라인 형식이 잘 맞았어요.

실습을 통한 배움

과정 중에 여러 센터에서 실습을 했는데, 센터마다 교육 철학이 달라서 다양한 방식의 유아 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덕분에 더 자신감이 생기고, 교사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힘들었던 점

국제학생으로 공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거든요. 특히 세 번째 실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겨울이었고, 몸도 아팠고, 이 사까지 해야 했는데 과제까지 밀려 있었어요. 정말 벅찼지만, 결국은 해냈어요.

센터에서의 일상

아침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에는 활동 준비, 매트 타임, 식사, 낮잠, 놀이 등 정해진 루틴을 따라가요. 오후에는 마무리 정리를 하고, 유아반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요. 하루가 꽤 분주하지만, 그만큼 늘 보람을 느껴요.



보조교사에서 예비 정식 교사로

처음에는 보조교사(Relief Teacher)로 일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실무 경험도 쌓았어요. 지금은 사우스 오클랜드에 있는 작은 센터에서 예비 등록 교사(Provisionally Registered Teacher)로 일하고 있어요. 특히 또래 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게 정말 좋아요.

뉴질랜드의 유아교육

중국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만 3세쯤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는데, 뉴질랜드에선 생후 4~5개월 된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걸 보고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참 좋다고 느껴요. 뉴질랜드의 어린이집은 마치 작은 사회 같아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르고 서로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

지금은 예비 등록 교사 자격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정규 등록 교사(Registered Teacher)가 되는 게 목표예요. 언젠가는 팀 리더가 되는 것도 꿈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보는 역할도 꼭 해보고 싶어요.

끝으로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길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꼭 도전해보시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실습을 마치거나 과제를 제출할 때마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뿌듯했어요. 힘들지만, 정말 해볼 만한 여정이예요.”

RACHEL IS SHAPING HER FUTURE.

To shape yours, enrol with UP Education, New Zealand.

POWERED BY UP EDUCATION